

구흥일 회장 서울중부 경우회 방문

— 금년도 시·도 및 지역회 방문 시작 —



구흥일 회장과 서울 중부경우회 및 경찰서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구흥일 경우회장이 금년도 전국 경우회 방문 첫번째로 지난 2월 6일 서울 중부 경우회를 찾았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부경찰서에 도착한 구 회장은 최영삼 중부 경우회장과 김학문 중부서장의 영접을 받는데 이어, 지역회에 둘러 조지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경우회 활성화에 수고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 『서울중부 경

우회가 방법, 교통 등 구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앙회의 직할 지역회라는 자부심으로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전국 제일의 모범 조직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 회장은 『지금 전국의 지역 경우들이 수사권 조정, 지역사회 봉사, 국가안보 문제 등에 앞장서고 있어 현직 후배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경우 조직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조직의 정체성에 걸맞게 평생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몸 바친 경헌을 살려 현직 후배들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하는데 지혜를 모으자』고 역설해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구 회장은 서정실에서 김학문 서장과의 환담의 시간을 갖고 현직 경찰에 대한 경우회의 측면 지원 방안, 전현직 유대강화 방안, 지역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가진 후 상황실에 둘러 격려금을 전달하고 현직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구 회장은 지난 2004년 10월 취임과 더불어 『경우회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소신으로 지난 해에도 전국 경우회와 경찰관서를 방문하고 전·현직이 하나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오는 한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격의 없고 민주적인 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경우회 발전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실낱 전후 특별 방법활동 전개

경찰청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을 맞아 금융기관 대상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2월 6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월 20일까지 15일간 특별방법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와관련 범죄없는 평온한 명절 치안확보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권역별로 묶어 거점순찰 및 검문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범죄취약지와 주요 교통요지에 경찰차량을 목 배치하여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찰 범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시간대별, 장소별 범죄발생을 분석하여 치안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적 가시적 방법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귀성·귀경객들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주요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와 지리안내, 교통안내에도 주력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모두가 함께 하는 설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우리들의 영원한 수사반장』

최중락 (경찰청 수사연구원, 前 총경)



한국의 형사 콜롬보라고 불리는 최중락 경찰청 수사연구원 (에스원 고문)이 최근 자신의 경찰인생 40년 및 민간보안업체인

자취를 수록했다. 또한 제 2부, 3부에서는 「가정부에게 협박당한 고위 공직자, 현대판 붕이 김선달」등 직접 체험하고 해결한 강력사건들에 대한 내용 및 후일담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4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애정 및 후배 수사관들에게 해주고 싶은 덕담 등을 진솔하게 기술하고 있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은 추천사를 통해 『최중락 수사연구원은 우리 경찰의 산 역사이며 증인』이라면서 『이 책이 우리 경찰에게 많이 일어져 업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운의 꿈을 안고 경찰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 경찰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경찰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체력단을 글로 남기는 것은 경찰 선배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최 수사연구원은 『우리 사회에 범죄인이 많다고 하지만 선량한 시민보다는 적을 것이고, 따라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악을 고발하고 범죄는 인생의赤字라는 것을 알리며, 자신에게 혹 미칠 수 있는 유혹의 손길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수사연구원은 이 책에서 제1부 절어진 발자취, 제2부 사건 현장 속으로, 제3부 사건 수사와 뒷다리, 제4부 이 시대를 살면서 등 총 4부에 걸쳐서 그의 인생 역정을 그려내고 있다.

먼저, 제 1부에서는 순경에서 총경까지 승진의 역경, 6.25 전쟁, 3.15 부정 선거 및 4.19 의거, 5.16 혁명, 범죄와의 전쟁 선포, 정년 퇴임, 에스원 근무, 최근의 근황 등으로 이어지는 인생 발

의 실제 주인공으로 20여년간 드라마 제작에 적극 참여하는가 하면, 경찰청 수사지도관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한 이후에도 후배들에게 강력법 수사기법을 가르치는 한편 삼성 에스원에서 고문으로 16년간 재직하면서 현직시절 같고 닮은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제 2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다.

그는 『어려웠던 시대를 헤쳐 온 구 시대 사립인 나의 회고록이 요즈음 젊은 경찰관들에게 어떻게 받아 들여 질지 두려움도 없지 않다』면서 『나의 자화상이 후배 경찰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중출판사: ☎ 02-332-5823)

警友문예회 新年人事會 개최

— 활발한 창작활동, 모임의 활성화 결의 —



경우문예회가 지난 2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삼일빌딩 뷔페에서 구흥일 경우회장, 황호환 문예회장을 비롯한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갖고 활발한 문예활동, 회원단합 및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이날 황호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예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경우회의 운영방향과 연계해 경우조직의 홍보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문예회 활성화를 위해 『경우신문의 일정한 紙面을 문예회에 배정하도록 건의하고, 경우문학상을 제정해 시상하는 한편 연 2회 정도 회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되, 여름에는 詩낭독을 병행하고, 겨울에는 경우문학상을 시상하며, 전국에 산재한 알려지지 않은 경우문인들을 회원으로 영입시킴으로서 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흥일 회장이 격려사를 통해 『글을 쓰는 분들은 영혼이 맑고, 修養이 되어 경지에 오른 분들이니 만큼 평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저도 일찍이 글을 쓰는 일에 관심을 가졌지만 특히, 재직 시절에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그렇게 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회려했다.

또한 구 회장은 『황 회장님을 중심으로 문예회원 배가운동에 노력해 주시는 것은 물론 경우신문에도 좋은 글들을 기고해 주시고, 질 높은 신문제작에도 문예회원님들이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올 한해 문예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 회원들은 오찬을 함께 하면서 모임의 발전을 위한 허심탄화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한편 향후 회원단합 및 조직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李相斗의 교통상식(46)



경기도 구리에서 가구점을 경영하는 변 모씨(40)는 며칠 전 몰진 구입차 승용차를 운전, 서울 왕십리에 갔다가 되돌아 오던 중 큰 낭패를 당했다.

변씨는 당시 왕십리 시장 앞 횡단보

에게로 되돌아가던 중이었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 보니 피해 어린이는 차에 부딪히면서 팔과 무릎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쳤다.

후유증이 염려된다는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검증까지 하게 되었다.

변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며 은근히 걱정이 됐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혹시 구속까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러나 조사 경찰관의 말은 뜻밖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 바뀌자 되돌아가던중 신호 바뀌어 출발한 차와 충돌시 일반사고로 처리

도에 이르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녹색진행신호로 바뀌기에 무심코 진행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건너갔던 5세 짜리 어린이가 갑자기 뒤돌아 서서 뛰는 게 아닌가.

변씨는 깜짝 놀라 급제동을 했으나 미끄러져 가는 차에 어린이가 받고 말았다.

어린이는 뒤따라오던 동생과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있다

었다.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사고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해자 어린이는 보도를 건너왔다가 건너지 않은 어머니에게 돌아가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적색(차량 신호는 녹색이므로)으로 일반사고라는 판정이었다.

다행히 변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하고 경찰서에서 벌금 스티커를 발부 받은 후 집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신 간 소 개

수필-『생명·사랑, 그리고 바람의 노래』

이당재 (경우문예회 부회장)



서울 노원경찰서장을 역임하고 퇴임 이후에도 경우문예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당재 회원이 최근 『생명·사랑, 그리고 바람의 노래』란 수필집을 펴냈다.

『글쓰기를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한다면 이 회원은 『산은 산, 眞如(진여)의 그대로이고 아직 眞我(진아)가 되지 못한 나는 더 높이 위를 쳐다보며 묵시의 巨坐(거좌)를 향해서 국적의 조바심으로 걸음걸음 오르고 또 오르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원은 이번에 펴낸 수필집을 통해 『생명의 찬가, 사랑의 하모니, 바람의 노래, 행복의 콘서트, 문인들의 생

애와 문학』 등 4부에 걸쳐 그의 사상과 내면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직 어린 아이 걸음마처럼 아주 서투른 未完(미완)의 것이지만 감히 『생명·사랑, 그리고 바람의 노래』를 내놓는다』며 『저자로서 我執(아집)의 곁질에 싸인 까마득이 되지 않도록 독자들의 따뜻한 충고를 기다린다』는 이 회원.

그는 이외에도 『바람에게서만 사연을 듣는다, 바람의 음계를 켜고, 바람꽃 피어 있는 풍경』등의 시집 3권, 『행복의 동지---, 맑은 바람 흰 구름처럼,』등의 수필집 2권, 『軍 아전수사실무, 조선시대 포도청 연구, 경찰 지휘통솔 연구』등의 전문연구지 3권을 출간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월간 문학: ☎ 02-744-8075)

國民 편익 위한 수사권조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전 근대적인 二重搜查 구조 속에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수사권 조정을 위해 온 국민의 여망 속에 경·검 간의 구체적 대안협의와 여·야 정치권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고, 사상 最多 인원이 참석한 입법공청회를 거쳐 여·야 국회의원들의 「형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17개월 동안이나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警·檢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립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정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검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警·檢간 수사권의 분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문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변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수경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수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그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